

보도해명자료

(17.12.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한미 FTA ‘농산물 추가개방’ 여지 남겼다”

(17.12.14. 한국일보)

1. 기사내용

- 13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1차 공청회에 발표된 ‘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’ 보고서에서,
 - 농촌경제연구원이 결론 내린 ‘농산물 추가개방 불가’라는 내용이 산업부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확인
-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“(농축산물 레드라인이) 김현중 본부장 진심인지 블러핑인지 알 수 없다”고 밝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
- 제 1차 한미 FTA 공청회(11.10)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‘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’ 제하에 제조업 추가개방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하였으며, 이후 패널토론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분야 영향을 발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진행이 중단되었음

- 이후 제 2차 공청회(12.1)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‘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’에 대해 발표했으며, 동 발표 자료에 ‘농업부문은 개정협상에서 제외 원칙 고수’라고 명시되어 있음

- 기자간담회(11.20)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‘농산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’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

- 정부는 그간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추가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미측에 지속 설명하여 왔으며, 향후 개정 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할 계획임

※ 문의 :

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

김장희 팀장 (044-203-5290)

이채원 사무관 (044-203-5292)

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FTA정책과

정용호 과장 (044-201-2061)

조서연 사무관 (044-201-2091)